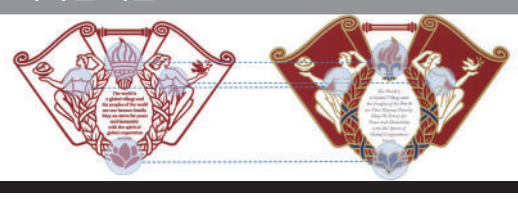
제 1590호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medi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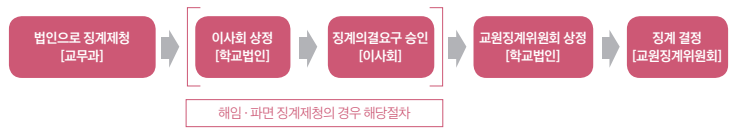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4 ≫ UI 디자인 개편



7 ≫ 관광대학원 논문표절 교수 징계 여부



2015-1학기 사회봉사 서류접수

제출서류 : 학점이수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2장 이상), 설문지 각1부
서류 제출 장소 : 서울캠퍼스 생활과학대학 612호 (지구사회봉사단 사무실)
서류 제출 기간 : 2015년 5월 26일(화)~2015년 6월 5일(금) 오후 5:30

사진제공 : 출판문화원

지난 15일 본관앞에서 열린 개교66주년 기념행사에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교가〉와 〈목련화〉를 부르고 있다

편곡된 〈교가〉, 〈목련화〉 처음으로 울려퍼져

개교66주년 기념행사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온오한 학술연구 온갖 노력 바치고…."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지난 15일 개교 66주년 기념행사에서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웅장한 선율과 어우러진 합창이 끝나자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합창단은 바로 〈목련화〉도 선보였다. 지난해 개교 65주년을 맞아 두 노래의 편곡을 의뢰한 뒤 처음으로 청중에게 소개된 순간이었다.

〈교가〉와 〈목련화〉는 고(故) 조영식 학원장이 각각 1953년과 1974년에 직접 작사했다. 여기에 음악대학 김동진 전 학장과 박태준 작곡가가 각각 곡을 입혔다. 〈교가〉의 노랫말에는 학술연구와 진리탐구를 통해 전 인류의 평화를 추구해, 보다 나은 미래세계를 구현하자는 염원이 담겨있다. 〈목련화〉에도 추운 겨울을 견뎌낸 강인하고 아름다운 목련처럼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배달(倍達)의 얼을 되살리자는 이상이 담겼다.

두 노래에 담긴 가치는 여전히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상을 반영한다. 다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곡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학과가 편곡을 맡았다. 편곡작업에 참여한 이우창(포스트모던음악학) 교수는 "교수진과 재학생들 모두 적극 참여했다"며 "요즘 정서와 리듬에 맞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로이 단장해 경희 구성원들이 더 친숙하게 즐겨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목련화〉와 〈교가〉는 각각 100가지 종류로 편곡됐으며, 그 중 구성원에게 공지할 10곡이 따로 선정돼있다. 앞으로 음원화해 경희인과 동문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한편 개교66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미래대학리포트가 공식발표됐다. 발표는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이 맡았다. 유 학장은 "미래리포트를 통해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그 내용을 '대학에 다니는 이유', '미래대학이 추구해야할 가치' 등 총 14개의 키워드를 토대로 설명했다.

이번 미래대학리포트는 지난해 진행된 〈대학의 미래와 핵심가치〉 설문조사와 〈미래리포트〉 연구를 종합한 결과다. 〈관련기사 5면〉

제2회 경희 웃는 사자상 시상도 진행됐다. 경희 웃는 사자상은 '경희정신을 널리 알린 학생'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처음 제정된 상이다. 총 32명이 지원한 가운데 학술연구, 사회공헌, 문화예술 부문에서 한명씩 수상자를 선정했다. ▲학술연구 부문 김한준(전자전파공학 2012) 군 ▲사회공헌 부문 김광우(국제학 2011) 군 ▲문화예술 부문 김물길(회화 2007) 양이 시상대에 올랐다. 김광우 군은 "어릴 적 9·11테러를 보며 국제범죄와 빈곤이 왜 일어나는지 고민했다. 대학생활동안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모의유엔대회에 22번 참가했다"며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둔 제게 이런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도록 지원해준 우리학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설

창간 60주년,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가 경희와 함께 호흡하겠다

1980년대 중반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언론은 유일무이한 콘텐츠를 다루는 매체였다. 외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소속 대학 내부의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서슬 퍼런 당대 군사정권 아래에서 패기어린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언론은 이렇다 할 대학 문화가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 대학생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가자고 독려하는 존재였으며, 일간지들이 머뭇거리던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시행하며 미디어 변화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이렇던 대학언론은, 2000년대 이후로 이념논쟁이 수그러들고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재편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동력 창출을 이뤄내지 못하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기성언론과 변별되는 명확한 시대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뉴미디어의 틈바구니에서 혁신보다는 생존을 고민하며 시나브로 쇠락해온 것이 지난 10여 년 간 대학언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학언론의 이런 '방황'이 곧 대학언론의 '매체적 효용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대학언론의 전제적 속성상 때로는 논지의 전개에 엄정성과 정치함이 부족할 수 있을 지라도, 여전히 대학언론은 대학의 이야기를 폭넓게 생산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매체다. 학내 각급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SNS계정이나 이메일 뉴스레터처럼 단순 정보성 팩트를 전달하는 매체는 이전 대비 급증한 상황임에도, 그 팩트들이 지니는 의미나 팩트 간에 존재하는 함의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도하는 기능을 갖춘 학내 미디어는 사실상 대학언론이 유일하다.

저널리즘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의 꾸러미를 2차, 3차로 가공해서 그 안에 내재된 '진실'을 추구해나가는 것이라 본다면, 뉴미디어의 급증 속에 정보전달 창구는 많아졌으나 개별 콘텐츠의 깊이는 점차 저하되고 있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오히려 대학 내에서 대학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신문이 경희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희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에서 구성원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대학주보를 꼽은 것은 우리학교 구성원이 다매체 환경 속에서 대학언론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창간 60주년을 맞은 대학주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며 대학언론 본연의 소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 60년 역사라는 구호 속에 뒤섞여 있는 오랜 유산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고 가져가야 할 것들과 혁신의 뒤 안으로 과감히 보내야 할 것들을 냉정하게 분별하며, 언제나 경희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향한 저널리즘을 구현해가려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성원이 원하는 경로와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외연의 혁신을 경주해갈 것이며, 대학주보가 살펴본 경희의 하루, 하루는 오랜 누적을 통해 곧 경희의 역사 그 자체로 남게 됨을 상기하며 시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위해 기자적 양심을 다해나갈 것이다.

창간 100주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대학주보는 경희의 모든 순간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나아갈 것이다.

대학주보 60돌,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동형 인터넷 수요 증가, 학내 매체들 온라인 서비스 확장돼야

경희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우리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희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2013년 처음 관련 설문을 진행한 이후 수용자의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정보파악'에 대한 요구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현재 우리학교 소식을 접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응답에서 알 수 있다. 이동형(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은 57.4%, 고정형(데스크톱PC) 인터넷은 31.3%로 나타났다. 종이매체와 같은 오프라인 매체라고 말한 독자는 10.6%에 불과했다. 2013년과 2014년 설문에서는 고정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7.2%와 42.4%로 이동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인 37.9%와 38.6%보다 높았다.

'앞으로 우리학교 소식을 접할 대 가장 자주 활용하기 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역시 이동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이 69.0%로 가장 높았고, 고정형 인터넷이 19.4%, 오프라인 매체 11.4%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학교의 소식을 알 수 있게 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동형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이 44.6%였던 것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24.4%p 증가한 것이다.

이번 통계는 이동형 인터넷이 보편화 됨에 따라 이를 통한 접근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학교 밖의 주류미디어 소비형태는 이미 이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인희(언론정보학) 교수는 "뉴미디어시대에 돌입한 만큼 경희구성원이 정보에 골고루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아동의 '표현의 자유' ≫11면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